

# 아시안게임 빛낸 스타들 전남서 금빛 대결 펼친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빛 감동을 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남에 집결한다.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남 일원의 7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 전국체전에는 시도 선수단에서 2만8477명(선수 1만9279명·임원 9198명)이 참가 신청했다. 재외한인체육단체에서 신청한 1316명을 더하면 총 2만979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강원도청)다.

황선우는 항저우에서 메달 6개를 목에 걸며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7개씩을 따낸 박태환에 이어 단일 아시안게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수확한 한국 선수가 됐다.

특히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남자 자유형 200m와 한국 수영의 전라 종목 남자 계영 800m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록도 풍성하다.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0으로 자신의 한국 기록(중전 1분44초42)을 경신했고, 계영 800m에서는 7분01초73의 아시아 신기록을 동료들과 합작했다.

항저우에서 아시아 무대는 좁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황선우다. 이제 전국체전 수영 경기가 열린 목포실내수영장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와 200m에 출전한다. 한국 남자 선수 중 최대 3관왕에 오른 수영 중장거리 김우민(강원도청)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김우민은 항저우에서 황선우 등과 계영 800m 우승을 합작한 데 이어 자유형 800m, 자유형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최윤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1982년 뉴델리 대회), 박태환(도하·2광저우 대회)에 이어 한국 수영 선수로는 세 번째로 단일 대회 3관왕의 위업

전국체전 13일 전남 곳곳서 개막 수영 황선우·김우민 목포서 대결

양궁에선 임시현·안산 '리턴 매치'

을 이뤘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물살을 가른다.

스무 살의 나이에 37년 만의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으로 우뚝 서며 김우민과 함께 대한체육회 남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임시현(한국체대)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활시위를 당긴다.

임시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았다.

특히 여자 개인전에서는 '도쿄 올림픽 3관왕'이자 대표팀 선배인 안산(광주여대)에게 6-0으로 완승하며 우승했다. 임시현과 안산 모두 대학부로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 출신인 데다 이곳에서 쪽 양궁을 배워온 안산으로서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될 터다.

항저우에서 라이벌 무타즈 예사바르심(카타르)과 명승부를 펼친 끝에 남자 높이뛰기 은메달을 목에 건 '스마일 점퍼' 이상혁(용인시청)도 전국체전에서 올림픽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아시안게임 4회 연속 펜싱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검객들의 광속 찌르기는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항저우에서 남자 사브르 2관왕에 오른 오상욱(대전시청), 그와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구본길, 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가 전국체전에 총출동한다.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송세라(부산시청), 여자 사브르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윤지수(서울시청)도 출격한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 중국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안산(가운데), 임시현(맨 오른쪽), 최미선이 금메달이 확정된 뒤 관중석의 응원단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FC, 파이널A에서 챔스 진출 노린다

### 강원에 1-0승...전 구단 상대 승리



전 구단 승리로 정규리그를 끝내 광주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겨냥한다.

광주가 지난 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1 2023 33라운드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김한길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앞서 1부 1패에 그쳤던 제주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전 구단 상대 승리에 강원만을 남겨뒀던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새 역사를 만들었다.

전반 18분 광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원외의 코너리 상황, 왼쪽에서 김대원이 띄운 공이 문전에 있던 김영빈에게 연결됐다. 이어 김영빈이 머리로 '천정탑' 광주 골대를 갈랐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

전반 39분 엄지성에게 시선이 쏠렸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잡은 엄지성이 그대로 강원 골대 앞까지 내달렸다. 페널티아크 진입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엄지성이 상대에 밀려 넘어졌지만 심판은 움직이지 않았다.

팽팽한 공방전 끝에 0-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전열을 기다듬은 광주가 후반 4분만에 결과를 만들었다. 두현석이 왼쪽에 있던 엄지성에게 공을 넘긴 뒤 페널티지역으로 진입했다. 엄지성에게 다시 공을 넘겨받은 두현석이 한번 짚은 뒤 왼발로 길게 크로스를 올렸다. 골대 오른쪽에 있던 김한길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고, 강하게 바운드된 공이 강원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후반 12분 강원 갈레고가 먼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린 게 골키퍼 이준 앞으로 향했다. 이준 손 맞은 공이 골대를 맞고 넘어가면서 실점은 없었다.

광주 이정호 감독이 확실한 승리를 위해 후반 19분 허울과 아사니를 투입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

였다. 추가골에는 실패했지만 7분의 추가 시간을 버티면 광주는 1-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파이널A에 오른 광주가 파이널B가 확정된 강원과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완성했다.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올 시즌 K리그1 유일한 전 구단 상대 승리이자, 광주 역사상 첫 기록이다. 또 이날 승리로 승점 54를 만든 광주는 2위 포항스틸러스(승점 58)를 4점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다.

한편 이날 경기를 통해 광주와 파이널A에서 맞붙을 팀들이 확정됐다.

전북현대가 FC서울과의 경기에서 한교원과 구스타보의 골로 2-0 승리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밀어내고 파이널A에 합류했다.

이와 함께 선두 독주 중인 울산현대와 함께 포항, 광주, 전북, 대구FC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가 파이널A에서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고 진검 승부를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여자배구단 AI페퍼스 출정식에서 장매주 구단주가 봄 배구 진출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AI페퍼스 "봄 배구 향해 질주"

### 2023-2024 도드람V리그 출정식... 15일 수원서 현대건설과 개막전

"봄 배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코트 서 뛰겠습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9일 오후 7시 30분 첫 출정식을 광주에서 열며 2023-2024 도드람V리그 출사표를 던졌다.

AI페퍼스는 이날 서구 화정동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2023-2024 시즌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사전 신청을 한 200여 명의 팬과 장매주 구단주(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동연 단장, 조 트린지 감독 등이 참석했다.

국가대표 공격수 박정아와 주장 이한비 등 선수단 전원과 코치진도 출정식에 참여해 이번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조 트린지 감독이 개막전 승리와 봄 배구 진출을 기원하는 '패스트, 펀, 피어리스'(빠르게, 즐겁게, 용감하게)라는 구호를 선포했다.

트린지 감독은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는 빠른 배구로 새 시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구

호에 관해 설명했다.

올해 신인 선수에 선발된 류혜선·박수빈·이주현·이재은은 새로 단장한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나서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선수단은 출정식에서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경품 증정 등이 이어졌다.

출정식 이후에는 페퍼스타디움 인근에 있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에서 박정아, 이한비, 야스민 선수가 참여하는 사인회가 진행됐다.

AI페퍼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 개막전을 펼치며 첫 승에 나선다.

19일에는 광주로 옮겨와 한국도로공사와 홈 경기를 치른다.

김동연 AI페퍼스 배구단 단장은 "장단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이번 시즌은 기대해볼 만하다"며 "미국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조 트린지 감독과 박정아, 야스민 등의 영입으로 팀 조직력을 완성시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KIA 한준수 데뷔 첫 결승타...삼성에 3-1 승리



KIA 타이거즈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16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3연승에 성공했다.

선발로 나선 이의리가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5.2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타석에서는 한준수가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삼성과의 경기에서 동점 적시타를 기록했던 한준수가 이번에는 데뷔 첫 결승타를 장식했다.

1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이의리가 2회 선두타자 강민호에게 2루타를 내줬다. 이재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먹었지만 김재성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1사 1-2루, 이의리가 김현준과 조민성을 각각 좌익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잡고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이의리가 3회에도 2사에서 김호재의 안타와 피렐라의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냈다. 앞선 타석에서 2루타를 만든 강민호와의 승부, 이번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이의리가 웃었다.

4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이의리는 5회 다시 한번 2개의 볼넷을 내주는 등 2사 만루에 몰렸다. 이번에도 강민호와의 승부가 펼쳐졌다. 이번에는 6개

의 공으로 강민호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만루 위기를 넘겼다.

6회 팽팽하던 '0'의 균형을 깨졌다.

이의리가 이재현과 김재현을 연속 삼진으로 잡고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김현준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폭투로 2사 2루, 대타 안주형의 타구가 좌익수 방향으로 향했다. 이우성이 몸을 날렸지만 간발의 차이로 공을 놓치면서 0-1이 됐다.

이어 김대우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와 강준서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아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이의리의 성적은 5.2이닝 5피안타 4사사구 10탈삼진 1실점이었다. 115개의 공을 던지면서 지난 3일 KT전에서 기록한 109개를 넘어 올 시즌 최다투구수를 기록했다.

삼성 선발 김대우에 막혀있던 KIA도 투수가 최지광으로 바뀐 6회말 바로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김선빈의 중전안타가 나왔다. 폭투로 2루까지 향한 김선빈이 소크라테스의 1루 땅볼로 3루로 이동했다. 그리고 고종욱의 적시타로 김선빈이 홈에 들어오면서 경기가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8회 KIA가 역전에 성공했다. 김선빈의 볼넷이 시작점이었다. 대주자 최정용을 투입한 KIA, 소크라테스가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이우성이 좌중

간 안타로 1사 1-2루를 만들었다.

고종욱의 땅볼이 나오면서 2사 1-3루, 한준수가 중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리드를 가져왔다. 대타 이창진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KIA가 3-1을 만들었다.

그리고 9회초 마무리 정해영이 등판했다.

전날 타이거즈 역사상 첫 3년 연속 20세이브를 만들었던 정해영은 2사에서 김호재에게 좌중간 2루타는 맞았지만 피렐라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시즌 21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이의리는 "슬라이더가 잘 들어갔다. 6회를 채우지 못한 것보다 점수를 준 게 아쉽다. 점수를 안 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1점, 1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원래라면 베틀은 야구를 했을 건데 지금은 점수를 안 주면 상황이라서 그게 아쉽다"며 "강민호 선배와의 승부가 중요했다. 지금까지 워낙 작구 위주로 가던 투수여서 다른 패턴으로 갔는데 그래서 삼성 타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연속 중요한 순간 타점을 만들어낸 한준수는 "지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앞선 세 타석에서 결과를 만들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4번째(결승타 타석) 타석에 들어갈 때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갔다. 주자를 불러들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자 불러들이자는 생각으로 타격을 했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